

北전역 ‘主戰場’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보고 나서야 정부와 국민이 북한 위협 실체에 대하여 모두 놀라고 있다. 궁핍한 북한을 도와주면서 잘 이끌면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이 흐트러지면서 우리 정부는 당황해하고 있다. ‘통일대박’의 꿈이 국가 안위의 위기로 급전직하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세 가지 무지(無知)가 가져온 비극

세 가지 무지가 오늘의 비극을 자초했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무지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잘못 알고 있었다. 정상국가란 국제규범을 지키고 자국 국민의 안위를 챙기는 국가이다.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을 앞세운 신정국가(神政國家)이다. 이 체제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민의 안위와 복지는 언제라도 희생할 수 있는 종교 국가이다. 북한은 북한 주도의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국가존립 목적 자체가 ‘김일성주의’ 국가의 완성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다고 이념과 체제의 변형을 수용하는 타협을 할 수 없다. 협상을 통한 통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왔다. 국민총생산이 우리의 40분의 1 밖에 안 되는 궁핍한 나라여서 우리와 맞싸울 수 없을 것이라 착각해왔다. 북한은 국민의 1할만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나라다. 나머지 인민이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전제적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의 반이 희생되는 전쟁도 감수할 수 있는 나라다.

둘째로 국제정치의 작동 원리에 대한 무지를 들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챙긴다. 다른 나라를 위해 자국 이익을 희생하는 국가는 없다. 우방을 돕는 것은 그 우방이 자국 이익에 도움을 줄 때 뿐이다. 미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민의 이익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존재가 미국 이익에 도움 될 때만 우리와의 동맹을 존중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때 미국이 자국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를 지켜 주리라 생각하면 착각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과신하여서는 안 된다. 평시에 의전적인 예우를 받았다고 그 나라를 우리 편으로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중국의 국가이익에 어긋날 때는 중국은 언제라도 우리를 적으로 밀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이상우

·본회 회우
·전 한국·조선일보기자
·전 한림대 총장
·현 신아시아연구소장

北이 核사용 하기전 無力化 시켜야

有人-無人공격 무기확보 특전전력 강화필요

협상-타협통한 평화추구 이젠 안돼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셋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이다. 한국은 G20의 하나로 올라선 경제선진국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성공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군사력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숫자상의 평가다. 국제사회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power)은 의지(will)와 능력(capability)과 전략(strategy)을 곱한 것이다 ($P=W \times C \times S$). 의지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 할 수 있는 결의의 수준이다. 정치 지도 집단이 당파로 갈려 서로 싸울 때는 그 의지가 ‘0’으로 된다. 능력은 목적 달성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적 역량인데 목표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 전략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능력을 시간, 공간에 배분하여 운용하는 기획이다. 전략이 치졸하면 아무리 능력 요소가 커도 정작 나라를 지키는 데는 소용이 없다.

우리 군사력은 북한보다 처지지 않는다. 앞선 경제력으로 우리는 북한보다 나은 무기를 갖추었다. 그러나 전략이 후진적이어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오늘의 전쟁환경은 ‘제4세대 전쟁’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제4세대 무기를 가지고도 제2세대 전쟁기획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제2세대 무기를 제4세대 전쟁에 맞추어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보다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잘못된 대북정책의 문제점들

왜 이런 황당한 사태에 이르렀는가? 첫째로 국가의 ‘장기 비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책을 내어 놓아 혼선만 빚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론’, ‘햇볕정책’, ‘연방제통일론’, ‘통일대박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에 비해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통일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핵무장으로 절대적 군사우위를 확보하고 남한 내에서 정치전을 벌여 한국에 친북 정부를 세워 통일을 이룬다는 계획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를 이끌어 가는 정

당들이 국가이익에 앞서 자기 당의 지지 확보에 집착하고 있어 통일된 국가 의지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점이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회우건강증진 3대사업 실시

① 안과 무료검사 ② 치매예방 강좌 ③ 한방 시술 봉사

새 회장의 후생복지 공약에 따라 3월부터 매월 건강 증진 프로그램 세 가지를 실시한다. 노안과 백내장 무료 진료 및 정신 건강 강좌, 그리고 한방 의료 봉사 등 맞춤형 서비스가 회우들에게 제공된다. 앞으로 호응도에 따라 강의 과목을 늘리고 다른 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첫째, 강남의 GS 안과에서 회원과 그 가족까지 노안 및 백내장 무료 검진을 매월 한 차례 하루 종일 실시한다.

3월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한다. 검진

희망자는 사전 예약하고 신분증과 현재 사용 중인 본회 회원 수첩을 지참, 신분을 확인한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1가지를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으며 라식 라섹 백내장 수술 등을 할 때도 18~40% 할인된다. 병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 1번 출구 바로 앞 미진프라자 8층 GS안과. 전화 : 담당 박유나 팀장 010-8725-3334, email : gseye@naver.com

둘째, 3월 11일 (금)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2층 중강의실에서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치매 등의 예방과 치료에 관해 김현우 박사의 정신건강 강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시행한다.

김현우 박사(71세)는 서울대의대 대학원 졸업 후 단국대의대 교수, 의과대학장을 지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한국신체정신의학회 회장,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장 등을 지낸 사계의 권위자다. 현재도 단국대 의대 명예교수로서 ‘스트레스 제로작전’, ‘현대인의 건강’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셋째, 한방 시술 봉사는 두나

본회 발전기금기탁 회우들에 확산

대한언론인회의 중흥을 위해 회우들이 발전기금을 잇달아 납부하고 있다.

지난달 말 조창화 고문과 한영섭 원로위원장이 각각 50만원을 대한언론인회에 기탁한 것을 비롯, 곽찬호 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이 50만원 그리고 강승훈, 공대식, 김용수, 김호기, 박영식, 박진서, 오전식, 이순기, 이향숙, 최대훈 회우가 각각 2만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했다.

이로써 지난번 이병대 신임회장의 1천만원 기탁에 이어 모두 1천1백70만원의 성금이 대한언론인회에 접수됐다.

대한언론인회는 액수와 관계없이 발전기금 1만원이라도 형편에 맞게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미스 의료 봉사대 3명이 프레스센터 12층 중강의실에서 3월 17일 (목) 오후 2시 첫 진료를 시작, 매월 시술 봉사를 한다. 이들은 20년 넘게 국내외 소

외 계층과 복지관에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봉사해온 숨은 의료진이다. 본회 정재필 회우가 이 봉사대 부회장을 맡고 있어 든든한 진료가 될 것이다. ☎

‘안보 불감증’ 씻을 특단의 대책 필요

지난 1993년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계기로 야기된 북핵문제는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요원하다. 그동안 수많은 접촉과 회담에서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던 북한이 2006년 첫 실험을 실시한 이래 4차례의 핵실험과 6차례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이다. 북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가 나서 제재에 나섰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우리는 더 한심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특정목표에 신속 정확하게 하는 국부공격)등 옵션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이명박 정부도 북핵문제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나서 해결해야하는 ‘담장 넘어 문제’로 치부했다. 이스라엘 같으면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핵개발을 벌써 저지했겠지만 우리는 그럴 의사도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속에 국민들 사이엔 ‘안보불감증’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금은 고질병중의 고질병인 천석고황(泉石膏肓)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북이 이른바 ‘수소폭탄’ 실험이라며 네 번째 핵실험을 한 지난 1월6일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의 풍경을 떠 올려보면 우리의 안보불감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 할 수 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떠뜨렸다고 하는 데도 놀라는 시민이나 분노하는 시민은 한사람도 없었다.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이순신장군 동상부근에는 세월호사건의 유족들이 오래전부터 벌이고 있는 천막농성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만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들에겐 북핵보다 ‘책임자처벌’이 훨씬 중요한 듯이 보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민오도 책임 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보수단체회원들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긴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전사회로 확산되지 않았다. 안보불감증의 원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바람(압박)보다는 햇볕(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이들의 대북정책은 핵문제를 외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을 오도하기까지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북의 핵개발 자체를 부인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북의 핵개발을 ‘자위적 수단’이라고 변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씨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남한에 대해 발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좌과정부의 이러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는 불문가지다.

둘째는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친북-종북세력들의 책동도 한 몫을 했다. 이들의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때 5만명이 넘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학계-언론계-경제계-관계-법조계 등에 침투해 있는 이들은 충실한 북한 선동원이나 다름없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압살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같은 민족인 남북이 힘을 합쳐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 등 북한이 해방 후 지금까지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외쳐 온 내용들을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셋째는 남북 간의 경쟁은 이미 끝났다는 잘못된 인식도 문제다. 소련과 동구공산권 몰락 등 동서냉전에서 서방이 완벽하게 승리하고 우리경제가 북한을 압도하



도준호

·본회 이사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우리사회 곳곳침투 친북-종북세력 발본 색원 나서야

‘恒在戰場’ 일깨워 국론통일 이루게 사회분위기 일신필요

면서 국민들 뇌리에는 남북 간에 ‘게임은 끝났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 물론 남북 간 경제력 격차는 남한이 월등히 높다. 한국은행통계로는 국민총소득(GNI)은 44배, 1인당소득은 21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경제력이 국력의 전부는 아니다. 군사력, 국민의지와 단결력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경제력과 병력수가 월등히 많았던 송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패해 양자강 이남으로 쫓겨 가는 등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적지 않다.

일부 지식인의 對北 온정주의 문제

넷째 일부 지식인들의 북한에 대한 온정주의를 들 수 있다. 소설가 김진명씨가 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본과의 대결에서 북한핵을 사용해 공격하는 등 북한핵이 민족의 공동자산이며 따라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잘한 일이란 인식이 나타나 있다. 또 한때 논란을 빚었던 조정래씨의 ‘태백산맥’ 주인공의 한사람인 공산주의자 염상진은 민족주의자이며 도덕적 인격자로, 동생인 청년단장 염상구는 주민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악질반동분자로 그리고 있다. 이것들은 단지 소설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을 우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사회에는 북한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배척하기보다 민족주의자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온정주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온정주의도 북한을 위협하게 보지 않는 불감증에 영향을 미쳤다.

안보불감증의 뿌리는 이처럼 복합적이다. 우리사회 갈등의 뿌리와도 연결되어 있다. 안보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엄혹하고 위험한 상태인가를 아는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 북은 4차 핵실험성공에 고무되어 연일 군중대회를 열고 “원수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며 대규모 군부승진인사를 단행해 군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자신의 고모부를 하루아침에 단두대로 보낼 정도로 포악하고 무자비한 젊은 김정은이 핵무기로 어떤 장난을 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총선에서 야당 정신차리도록 해야

따라서 국론을 하나로 통일해 북의 도발에 가차 없이 응징하며 도발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우리사회전체가 항재전장(恒在戰場) 기풍에 휩싸이도록 해야한다. 개성공단폐쇄, 군사훈련강화 등의 조치와 별도로 정부가 앞장서 사회원로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국회에서 기존의 대북정책으로 북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며 강력하고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의 위협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없다면서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는 야당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대통령이 가두서명까지 벌일 정도로 절박하다고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을 3년이 넘도록 거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10년이 넘도록 야당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에선 국민들이 앞장서 야당이 정신 차리도록 해야한다. 내부적으로 부패척결과 종북주의자 등 범법자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도 없는 법치를 확립해 나가야 애국심이 살아나고 안보불감증은 사라질 것이다. [국회]

1면에서 이어집니다.

시급한 국방개혁 과제들도 여야 투쟁 마당인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들을 해주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독선적 자세도 문제다.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겨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앞선 정부에서 일했다고 전문가들을 모두 배제하고 ‘참신한 신인’들이라는 아마추어들에게 정책의 수립, 실행을 맡겨 놓아 오늘날 같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모두 몇 십 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우리는 전문성 아닌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내세우고 비전문가들을 낙하산으로 연구소로 내려 보내고 있어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우리 사회 자체의 문제들이 쌓여 지난 20년 동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

대북정책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핵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 위협 제거다. 북한의 무력위협 아래서는 어떤 통일정책도 펼 수 없다. 북한의 무력위협에 대해서는 ‘능동적 억제전략(proactive deterrence)’을 세우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등을 사용하기 전에 무력화(無力化)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이 공을 들여 만든 무기들을 쓰기 전에 한국이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 등을 만들 생각을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영토 안에서 적의 침투를 막는다는 소극적 전략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전장(主戰場)을 북한의 전 영역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유인, 무

인 공격무기를 대량 확보하고 북한 전역에 전개할 수 있는 특전 전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스라엘이 아랍제국의 포위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 나가는 지혜를 빌려 와서 한국 독자적 능동적 자위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확고한 자주국방 의지를 굳혀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도 자주국방 의지가 없는 한국을 지원해주지는 않는다. 동맹의 도움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맹에 국방을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북한과의 타협으로 평화를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 독일은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동독이 ‘정상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은 인민의 안위와 복지를 우선적으로 지키려는 정상국가가 아니어서 이런 정책은 시기상조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스스로 변신할 때까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다. 새로운 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틀에 맞추기를 바란다.

첫째,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원칙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생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서의 생존이다. 둘째로 능동적 전략(positive strategy)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 ‘반공’이나 ‘방어’ 등의 수동적 전략(negative strategy)은 아무리 성공해도 현상을 넘지 못한다.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선제적 제거, 북한의 민주화 등 투쟁의 주전장(主戰場)을 북한으로 옮기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정책이어야 한다.

셋째로 북한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 전개를 위하여 국내에서 ‘단합된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을 쏟아야 한다. 북한의 대남 정치전을 무력화(無力化) 시켜야 우리의 능동적 대북한 정책, 통일정책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가자. [국회]

'한국형 비대칭 전력' 개발 집중할때

“1980년대에는 이 땅에 미군이 한 사람도 없다고 가정하고 합참은 독자적인 군사 전략 및 전력 증강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하라!”

1973년4월 ‘을지연습 73’ 순시를 위해 국방부를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합참으로부터 ‘국방지휘체계와 군사전략’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에 참여하라” “중화학공업 발전에 따라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 등을 제외한 소요 무기 및 장비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도 함께 내렸다.

국방비, 율곡사업 이래 37년간 121조원 투입

약 1년 뒤인 1974년2월 합참은 서울 홍릉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軍) 전력 증강 8개년 계획’(1974~1981)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 창군 이래 최초의 자주적이고 체계적인 전력 증강 계획이었다. 이 비밀계획은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율곡 이이 선생의 이름을 따 ‘율곡사업’이라는 위장 명칭이 붙었다.

박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리고 군에서 다급하게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한 데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 사이 1·21 청와대 기습 사건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님슨 독트린, 주한 미 7사단 철수 등 안보 위기가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도 우리를 버릴 수 있고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율곡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군 전력 증강에 투입된 돈은 모두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1974년부터 2011년까지 37년간 군 전력 증강 사업에 총 121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뒤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돈이 무기 도입 및 장비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피부에 잘 와 닿지 않을 천문학적 돈이다.

국방부는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 등을 통해 우리가 아직도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은 물론 재래식 전력에서도 북한에 비해 상당한 열세라고 강조하면서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북한보다 훨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어떻게 아직도 북한군보다 열세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전전긍긍하게 됐는가”라며 군의 주장에 불신감과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北, 적은 비용으로 비대칭전력 발전에 힘쏟아

반면 북한은 어떠했는가. 60여년 전인 6·25전쟁 때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유엔군과 국군의 반격에 패퇴했던 1950년 12월 23일 김일성은 평안북도 만포진 별오리에서 군 지휘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승세를 굳혀가다가 패배한 원인에 대해 비(非)정규전 부대와 보급의 중요성 등 여덟 가지 교훈을 제시했고 이 교훈은 그 뒤 북한군 군사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북한식 군사전략을 상징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1966년엔 “한반도는 산과 하천이 많고 긴 해안선을 가지므로 이러한 지형에 맞는 산악전, 야간전, 배합(配合) 전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돈이 많이 드는 재래식 무기 증강이 어려워지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잠수정, 경(輕)보병부대 등 20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 사이버전, 잠수함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GPS 교란이나 2014년 청와대 상공을 비행해 큰 파문을 일으킨 소형 무인항공기도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비대칭 위협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는 정신으로 만들어진 북한의 ‘싸구려 무기’들은 우리 군을 우롱하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키우는 데 성공하고 있다. 북한의 수십만원짜리 GPS 교란기는 수백km 떨어진 GPS 장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

북한이 지난 60여년간 독자적인 전략과 전술, 무기체계

특별기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군사전문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지시 외면 美 무기체계에만 의존

돈 적게 들이면서 강국 아킬레스건 잡을 선택과 집중 필요

개발에 집중해온 반면 우리 군은 1973년 박대통령 지시와 달리 철저히 미군의 전략과 교리(敎理), 무기 체계에 의존하며 독자적인 전략·전술 개발에 소홀히 해왔다. 미군이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 개념, 전술을 도입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추종하기에 바빴다. 북한군 무기 체계 기술의 수준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항상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신무기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식적인 국방비만 비교하면 한국군은 북한군의 30배에 달한다. 2014년 기준으로 북한의 공식 국방비는 11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같은 해 우리 국방비 35조여원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북한의 국방비는 은폐된 부분이 많고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우리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무기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15년 세계 군비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 평균 GDP의 23.8%를 국방비로 지출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밝혔다.

무기도입 우선순위 전면 재검토해야

이 보고서에 따르면 11년 동안 북한의 연평균 GDP는 170억 달러로 세계 101 위에 불과했지만, 국방비는 GDP의 약 4분 1에 해당하는 40억4000만 달러로 세계 36위를 차지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은폐된 군사비와 구매력평가환율 등을 고려한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4년 북한의 실질 국방비 규모가 남한의 3분의 1 수준인 102억 달러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지난해 발표는 편향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우리가 북한에 비해 10배 가까운 국방비를 써왔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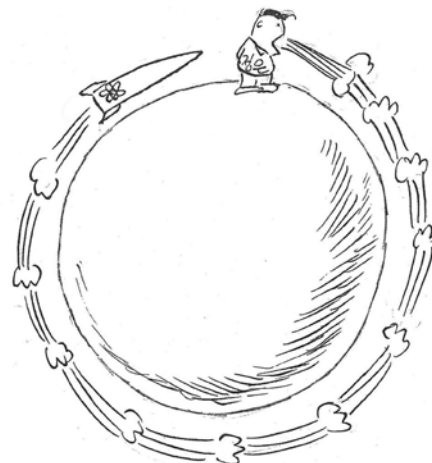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나름대로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고 전력증강에 있어서도 백화점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 이후 중국·일본 등 주변 강대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돈을 적게 들이면서 주변 강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는 '한국형 비대칭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결심권자인 김정은을 제거하는 특수부대 등 참수작전 전략, 북 핵·미사일 시설 등 주요 전략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탄도·순항미사일, 주변국 항모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이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국방비 증액도 필요하지만 군 내부적으로 무기도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산이 많은 한반도 지형특성상 대규모 전차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계화부대 전력이나 포병전력에 모두 수십 조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4]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회우)



결국 돌아오는건?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



고통분담 장기적 경기대책 절실하다

2016년 한국경제는 새해 벽두부터 밀어닥치고 있는 세계적인 악재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금융시장 대혼란, 국제유가 폭락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총체적 난국(perfect stop)에 빠졌다.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3차 경제위기 에 직면하고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경제는 지난 2014년 세월호사건과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와 수출부진으로 경제가 저성장 속에 물가하락을 보이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소모적인 안보논쟁은 국론분열까지 일으키고 있고 정치권은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4·13 총선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은 대내적으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 경착륙 우려, 국제유가 폭락, 마이너스 금리의 공포 등 대외 악재를 보면 글로벌 경제와 우리경제의 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중국의 경착륙 우려

중국은 2015년 경제성장률이 6.9%로 추락하면서 경착륙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7% 성장시대가 마감되자 중국은 연초 시중에 110조원의 자금을 풀기로 하는 등 긴급경기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규모로는 경제의 윤희유가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월가 금융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실제로는 4~5%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간조사기관인 미국 콘퍼런스 보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3년내에 3%대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중국경제가 경착륙(hard landing)은 피한다 하더라도 거친 착륙(rough landing)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위안화 절하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다. 지난 해 8월 전격적인 절하 조치 이후에도 중국의 불안한 경기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위안화는 올 해도 5~10% 가량 절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한·중 무역구조가 보완관계일 때에는 위안화 절하는 오히려 호재였다.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한국 중간재의 대중수출도 동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보완관계는 많이 악화됐다. 한·중 무역보완도는 크게 하락했고 미국시장에서의 한·중 수출 경쟁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위안화 절하에 따른 중국수출 회복이 우리 수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이제 위안화 절하는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악재로 변한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을 0.1~0.4%p 하락시킨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그 영향이 크다.

국제유가의 대폭락

지난해 세계 3대 원유 평균 가격이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국제유가는 공급과잉과 세계경기 불황 우려 영향으로 지난 1월 배럴당 28달러로 추락했다. 2014년 100달러 선이었던 국제유가가 추락을 거듭하며 지난 2월 16일 30달러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당분간 감산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와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 해제 등으로 올해에도 석유 공급 과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경기둔화로 석유 수요가 감소하는 등 올해도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산유국들의 디폴트 가능성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산유국들에 돈을 빌려준 독일 최대은행 도이치뱅크가 파산해 과거 금융위기를 유발했던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유가폭락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 러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 등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유가로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



최택만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중국성장 둔화

국제유가 파동속

마이너스 금리 강풍

중화학 구조조정 등

강도높은 개혁 절실

정책 失機말아야

서 전체 수출 중 신흥국 비중이 58%에 달하는 한국은 조선·건설·플랜트 등 주력 수출 분야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로 올 2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87억5천2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상 최장인 14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의 공포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채택한 마이너스 금리제도를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1월 채택하면서 세계 경제를 예기치 못한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은행주 폭락을 시작으로 전체 주가가 대폭락하는 역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2월 16일 기준으로 주식가격은 중국 19.85%, 홍콩 16.9%, 일본 15.65% 폭락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도 10%대 하락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3.72% 떨어졌다. 세계 증시를 강타한 것이다.

ECB는 당초 시중은행의 예치금에 마이너스 금리(-0.3%)를 적용해 은행의 대출을 독려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디플레이션 높에서 탈출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실적 악화와 부실 증가를 낳아 오히려 대출을 위축시키고 곧바로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를 높이는 바람에 오히려 엔화 강세와 금 선호현상을 불러왔다. 과거 금융위기 때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워 글로벌 금융시장이 마이너스 금리의 공포에 빠지게 했다.

대형악재 이후 대응전략

우리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하여 대 중국 수출구조를 현재의 중간재 위주에서 소비재와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소비재도 저가위주의 소비재 수출이 아니고 프리미엄제품 중심으로 전환하여 집중 공략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특히 한·중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및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품목의 수출을 최대한 늘리고 신흥국과의 FTA를 계속 추진해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산유국의 유가 폭락에 따른 대응책으로 현재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철강 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의 합병을 유도하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 확충을 지도하고 공급 과잉을 축소하는 한편 한계기업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마이너스 금리의 공포는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1.5% 선에 있어 금리를 내려도 마이너스 금리에 이르지 않아서 다행이다. 오히려 한국은행이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로 크게 낮아졌다. 현재 사상 초유의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체질 개선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부분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단기 경기부양대책을 버리고 장기적인 경기대책으로 경제정책을 전환 해야한다. 에너지 신소재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 ICT(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위주의 장기경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우리경제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살아나기 힘든 중병에 걸려 있는 현실을 모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개혁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총역량을 동원해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정책 실행이 있어서는 안되는 엄중한 시기이다. [국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험한 안보관

핵폭탄을 가진 나라와 전쟁을 하면 굴복하든가, 자멸하든가 두 길 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선 긍정적인 방법이든 부정적인 방법이든, 명예스런 조건이든 다 합당한 것이다. 국가 안보는 이념, 경제, 선거에 우선한다. 나라를 잃으면 주권과 영토만 잃는 게 아니라 국민 정체성 자체가 사라진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 핵에 눈 감은 이종걸 더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인사들의 국적불명 안보관이다.

김 화(본회 이사)

전쟁을 하자는 거냐? 그래 한판 붙자!

김정은과의 녹취록 같다. 개성 공단 폐쇄 관련 “전쟁을 하자는 거냐?”고 한 문재인에게 “전쟁 막는 비

'100자 발언대'

법 가지고 있나? 계속 퍼주고 눈치보다 항복하는 것 말고 진짜 방법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라! 멋진 해법 내놓으면 나, 니 편 될 거다.” 라고 말 하고 싶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에 화가 난다고도 했다. 나는 화난다는 그 말 듣고 더 화가 났다. 개성공단 그건 애초에 배넛병신 아니었나? 냉정한 진단부터 해야 한다. 호천웅(본회 이사)

철새 정치꾼들

政街愚評詩
東食西宿季節鳥 肝膽交着類政客 狗肝狗膽類相似 汚

物洗禮祖上面

동쪽에서 먹고 서쪽에서 머무는 철새/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하는 정치 놀음꾼/ 더러운 간 쓸개와 닮은 꼴일세/ 조상님 면전에 오몰 세례하네.

김한봉(본회 회우·전 대한일보 기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인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하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는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일은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다. 이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희곤(본회 회우·전 헤럴드경제 논설위원)

선거혁명으로 ‘제3의 기적’ 만들자

두 기적의 극복 필요

지금은 혁명전야이다. 혁명의 마그마가 한국뿐 아니라 온 지구에 철철 끓고 있다. 2016년 이제 우리는 선거의 폭풍으로 들어간다. 금년과 내년의 선거는 단순히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19대 대통령 선거가 아니며 87년 체제 30년을 청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치적 판단도 넘는 것이다. 이 나라 안팎으로 불어 닥친 혁명의 마그마, 파펙트스툼으로 해서 그리고 당장 연초부터 불어 닥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이 나라는 민족사적 위기를 겪게 된다.

여야를 넘어 사회각계 기성주류가 누리는 ‘과거’ ‘일상’ ‘버릇’ ‘기득권’이, 민생으로 가장한 ‘경제 제1주의’, 평등으로 가장한 ‘민주화 제1주의’, 민족을 가장한 통일지상주의에 안주하다가가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물리적 폭력혁명의 파멸로 가느냐 아니면 평화적 선거혁명을 통하여 새 질서 새 패러다임의 나라를 창조해내느냐는 국가생존 차원의 실체적 위기로 도전이다. 시민과 정치인과 각계 리더십이 양식과 책임, 공동선과 ‘정의 평화’,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선거혁명을 이루고 정치를 부활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는 나라 망치는 폭력혁명으로 가느냐, 구국의 평화적 선거혁명으로 가느냐는 갈림길의 한가운데 서있다.

정치의 복원이 아니라 부활이다. 복원할 모델이 없으니 창조의 작업이요 죽었다 깨어나는 부활의 작업이다.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병철 정주영 신화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들을 짓밟아서는 안된다. 과보다는 공이 큰 것이 사실이고 엄연한 대한민국 역사의 실체이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신화, 영웅신화 속에 멍에처럼 덕지덕지 끼어있는 때들을 떼어내고 정리하고 여과하고 승화시키지 않고는 혁명의 마그마를 막지 못한다. 이들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도착적 근대화’의 상처를 치유, 극복하지 않고는 폭력혁명의 비극을 막지 못하며 대한민국의 성공기적은 2015년으로 끝난다. 이들이 산출한 저 너더리나는 지역패권주의, 경제 제1주의, 민주화 제1주의, 통일지상주의, 수단방법 안가리기 성공 제1주의, 재벌우선주의, 노조우선, 부패공범화, 안전경시, 기본 기초 무시를 털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제3세계 국가 중 정치민주화, 시민사회, 언론자유, 근대경제성장 과 산업구조 선진화, 교육과 과학기술의 고도화, 사회문화의 다원성 개방성 등 근대화의 보편적 기준을 거의 완벽하게 달성한 즉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이 위대한 기적을 이룩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성공의 박수를 쳤던 외국인들조차 조롱하기 시작한 ‘도착적근대화’의 악성기적이다. 자살률 특히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세계최고이면서도 젊은이들 역시 취직도 결혼도 출산도 주택도 희망을 버려야 하는 3포세대로 전략하는



김진현

- 본회 회우
- 세계평화포럼이사장
- 국가전략포럼회장
- 전 과학기술처장관

主流 대참회 통해 기득권 희생해야 정치 ‘부활’ 가능

공짜 없다는 역사의 교훈 모두가 되새겨야

소득양극화, 세대양극화 현상. 출산을 최저, 낙태율 최고, 이혼증가율 최고, 성형시술률 최고, 존속살인을 최고라는 통계로 나타나는 급속한 가족와해. 이 나라가 과연 유교전통의 나라였던가 의문케 한다.

제3의 기적-세계중심 창조로의 길

이제 첫 번째 ‘근대화혁명’의 기적을 참회와 기본의 채로 거르고 두 번째 진행되고 있는 ‘도착적근대화’ 기적은 청룡도(靑龍刀)로 쳐내면 대한민국이 경험한 두 기적은 새 문명, 새 역사, 새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또 하나의 기적, 세 번째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두 기적은 아주 값진 경험이다. 한인(韓人) 한민족 역사상으로는 물론 선진국 후진국, 동양 서양 모두 합쳐 대한민국의 두 기적 같은 속도, 범위, 깊이의 변화, 변질은 다시없다. 지구촌 어디에도 없었던 특이한 기록을 세운 경험이다.

우리가 자력으로 좋은 경험은 최선의 경험으로 승화시키고 나쁜 경험, 악성도착 경험을 양성(良性)변종으로 교정시킬 수만 있으면 우리는 제3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품고 동양과 서양을 모두 소화하고 전 근대와 현대와 탈현대를 융합하는 그런 새 질서 새 문명 새 패러다임의 창조-선진(先進, 善進)국가, 덕진(德進)국가. 분단휴전선과 북한의 3대 세습왕조와 남한의 두 기적을 뛰어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마음과 이념의 고뇌와 실천.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를 관통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오늘의 니대르

이흥우 (본보 편집위원·상명대 석좌교수)



위험을 제거하는 비(非)대칭적 대한민국만의 실력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것이 제3의 기적이다.

그런 첫 단추가 정(正)의 정치, 정치의 기본의 부활이다. 그간 우리 정치는

경제성장민주주의 반공과 복지와 통일이란 명분으로 국민을 최면하고 국가명제를 사유화(privatization)했다. 정치지도자들의 명분 사용(私用)이 지나쳤다. 너무 오랫동안 올바른 정치, 정의의 정치, 정치다운 정치 즉 나라의 갈길 사회공동체의 공동선과 ‘정의의 평화’를 위하여 민의를 모으고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와 협치를 만들고 안보와 경제자립에 충실한 그런 정치, 그런 정치를 위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 실종되어 왔다.

정치의 부활이란 창조작업을 위하여 이 나라의 주류, 특히 주류의 리더십은 첫째 대고백, 대참회, 대화해의 장치를 만들고 이 여과막을 거치는 대탕평의 씻김굿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용감한 투쟁의 용사가 아니라 장렬한 희생의 불꽃이 더 빛나야 한다. 기득권 희생, 심지어 기득권을 배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시민과 모든 각계 리더십은 이제 공짜가 없다는 역사의 교훈, ‘풍요도 공짜’가 아니었다는 ‘근대의 교훈’을 반주해야 한다. 근대경제성장과 지구온난화, 에너지낭비와 대기오염, 안보자립의지 없는 경제대국,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과도하게 편중된 균형 될 수 없는 생존구조를 곱씹어야 한다.

자력요소와 원조 외생적요소를 냉정히 통시(通時)적, 통장(通場)적으로 종합 검증하면 ‘한강의 기적’이나 ‘광화문의 기적’은 실은 자립적 요소가 생각보다 크지 않음도 인정해야 한다. 공짜가 많았음도 인정해야 한다.

정치파행, 복지 노사분규, 재벌과 양극화, 부패와 사회불신, 사회해체, 국가공동화, 생명파괴의 뿌리에는 가장 평범한 사회윤리 즉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망각한데 있다. 선거혁명으로 망국의 폭력혁명을 막고 대한민국 제3의 기적을 창조하자. [4]

회우들이 펴낸 신간

여영무 회우 ‘소피 엄마의 워낭소리’

‘소피엄마의 워낭소리’는 여영무 회우가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쓴 에세이다. 여 회우는 “어머니가 겪은 인고의 궤적을 글로 형상화해 보통 사람의 위대한 어머니로 부활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썼다”고 집필 동기를 밝힌다. 여영무 회우는 어머니의 일생을 저자가 체험한 한국현대사와 교차시켰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 속에 저자가 경험한 1930년대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 6·25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오늘날까지의 현대사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펼쳐 엮었다. 장남인 저자를 깊이 사랑해 젖을 일찍 떼지 않았던 어머니, 뜨거웠



던 교육열. 그리고 모진 고생 속에서 늘 강인해 보이던 어머니가 노년에 쇠약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무상을 느낀다. 자식에게 “이제 가면 언제 또 올래?” 하면서 아이처럼 매달리고 당부하던 모습에선 할 말을 잇는다.

흙수저 논란, 광기 어린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등으로 혼돈한 세상을 정화하고 인간이 본성으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처방 “‘어머니의 사랑’이 답”이라는 게 저자의 경험으로 본 결론이다. 어머니의 가이없는 사랑을 유려한 글로 다듬은 이 책은 단숨에 독자들을 빠져들게 한다. [4]

나는 무시로 시청 앞 지하도를 지나다닌다. 덕수궁 대한문 근처에 있는 내 독서실 가까이에도 적당한 식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심때만은 되도록 명동으로, 무교동으로 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곳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나는 가끔 길가의 잡화점 구멍가게를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한다. 각종 손전등도 있고, 날카로운 손칼도 있고, 자물쇠와 열쇠도 있다.

나는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주인에게 말하였다. ‘소리 잘 나는 호루라기 있습니까’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주인아주머니는 반색을 했다. 그러면서, 고가(高價)일 것 같은, 고급 포장지 돼 있는 그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한번 불어 보아야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려면 부득불 포장 일부를 뜯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한번 힘껏 불었다. 주인은 손으로 귀를 막았다. 좀 더 큰 소리가 나는 것은 없습니까? 주인은 다른 것을 내밀었다. 뒤늦게 가게에 들어온 남자주인은 나에게 말했다. 그것은 프로용입니다. 나는 즉각 응수했다. 내가 바로 그 프로요, 라고. 하긴 나도 어떤 분야에선 분명히 프로다.

이리하여,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호루라기와 나의 인연이 생겼다. 나는 젊은이들이 회사 출입증을 목에 걸고 다니듯 이것을 목에 걸고 다닌다. 잠자리에서도 늘 손에 쥐고 있다. 새벽 일찍 독서실에 나와서도 한번씩 꼭 힘껏 불어본다.

나는 그동안 내 나름대로는 늘 나라 걱정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

러나 요즘은 도무지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대통령은 왜 저러고 있는지, 여당이라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주춤거리고만 있는지, 야당은 왜 저렇게 알 수 없는 짓거리들에만 열중하고 있는지,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는 초상집 같이 검은 초상화 사진들이 덕지덕지 걸려있는, 불쌍사나운 불법 천막촌이 저토록 장기간 허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위기를 맞으면 두 눈을 부릅뜨고 긴장을 해야지, 우리의 조야는 도대체 무슨 짓거리들이냐. 여당의 원내 대표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나는 그동안 우리 헌법 제1조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책임 있는 현역 정치인이 고작 ‘민주주의’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나라는 안테 하나.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세계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사태는 일찍이 어느 나라도 겪어보

호루라기

박현태 칼럼



·본회 원로회우
·전 KBS 사장

지 못한 비상사태들이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전적 민주주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비상사태 아래서는 국가의 긴급권 발동만이 유일한 약이다. 따라서 이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 긴급권 발동만이 약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언제 철이 드나.

그러나 나는 이제 마이크도 없고, 확성기도 없으며, 조직도 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항배를 ‘국운’에 맡겨놓고, 그 추이를 방관 또는 방견(傍見)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속수무책이다. 이렇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지켜보다가 정 못 참을 지경에 이르렀다 생각되면 그때에는 이 호루라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힘껏 불어제칠 작정이다.

겨우 ‘백범 김구선생을 존경한다’는 부류들이 신당을 만든다면서 큰소리를 치고 다닌다. 정치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되어야 한다. 김구선생이 도대체 무엇을 해놓았다는 말이나. 그저 ‘반 이승만’을 외

쳤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얘기나.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봐도 문제가 많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공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요즘 부쩍 시진핑을 가리켜 ‘당 핵심’이라 치켜세우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함성이나, 비명이나. 김정운을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 북한에 장래가 없듯이 중공도 점점 종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원화(元貨)의 국제화에 성공한 것은 중공 경제의 앞날에 오히려 명에 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중공이 마음대로 주무르던 통화를 국제기준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푸틴의 러시아도 미국에 버금가는 대국이 되기는 아예 글렀다. 유일한 수입원인 석유 값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고, 경제 전반은 국제제재의 포위망을 벗어날 징조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올 연말에 결판이 날 미국의 대선을 봐도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할까 염려스럽다.

다만 일본만이 건재한 것 같다. 오래된 ‘디플레이션 경제’ 극복을 위해 있는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예견하고, 그들의 군대에 ‘미사일 파괴 명령’을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미국이 나가는 한, 지구의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대상 제1호인 우리 한국이, 그 어느 것 하나 명확한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는 지극히 대조적이다. 나는 달랑, 호루라기 하나만을 목에 걸고 이러한 복잡 미묘한 국내외 정세를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4]

골프선수 장하나가 지난 1월31일 LPGA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앨버트로스를 기록했다. 앨버트로스는 상상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는데 우리 여자선수가 멋지게 만들어 낸 것이다. 네 번 쳐서 홀에 넣는 게 기본인 미들홀에서 단 한 번에 공을 홀에 넣어 버린 것이다.

얼마 전 지방에서 정치 활동하는 지인이 카카오를 통해 보낸 영상을 봤다. ‘바보 새라고 불리는 새’라는 제목이 달려있었다.

앨버트로스 얘기였다. 답신을 보냈다.

“골프 칠 때 앨버트로스가 최고 인건 알았는데 그 놈이 바보 새 인건 처음 알았습니다. 하긴 바보가 최고이기도하지요. 멀리 보고 멀리 나는 당신, 핫팅! 계속 꾸준히 하시길...”

그리고 멀리 보는 바보들 생각을 했다. 그들은 바보 같았으나 멀리 내다보고 종국에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았던가?

그리고 눈앞이 어두워 장래를 망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남미 특파원이던 시절에 아르헨티나 최남단 우수아이아 출장을 갔었다. 남극 턱밑의 설국(雪國)을 취재하면서 앨버트로스를 생각했고

고용했던 현지인 카메라맨에게 내가 앨버트로스의 멋진 영상을 찍으면 100달러의 특별 상여금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던 기억이 난다. 나에게는 호기심이고 객기였는데 그러마고 한 그는 앨버트로스가 어떤 새 인가를 알고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장하나 선수가 해보인 앨버트로스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로또 복권이 아닌가 싶다. 장선수의 앨버트로스는 정말로 노력하고, 갈고, 닦고, 또 닦은 연습의 결과인 진짜 축복의 열매다.

이어서 장선수가 지난 설 전 날인 2월 7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LPGA 코츠 골프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내는 것을 봤다.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가를 그것만으로 가늠할 수 있었

丙申年 - 멀리보는 바보가 그림다

살며 생각하며



호천웅

·본회 이사·편집위원
·전 KBS LA지사장
·수필가

다. 하지만 로또는 그냥 어쩌다 얻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 복권 탄 이들이 대부분 불행의 나라를 헤맨다고 하지 않던가? 노력 없이 얻는 열매는 금방 썩어버린다.

멀리 보는 바보 새가 최고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비워야 채워진다’는 좀 다른 뉘앙스의 말이 떠올랐다. 요즘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이 맞다는 사실을 뉴스를 보면서 실감하

곤 한다.

참말로 욕심으로 채워진 이들이 얼마나 흉한 모습으로 일그러지고 있나를 보기 때문이다.

허기진 배는 채워야 하지만 욕심을 채우려다간 패망의 길로 빠져 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에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고 하지 않았는가? 비우면 멀리 보이는 것을...

멀리 나는 앨버트로스는 북한 땅 풍계리와 동창리 상공도 날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새는 수소 폭탄 실험과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전직대통령 세 분도 하늘나라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장면을 내려다 봤을 거다. 생전의 생각과 다른 상황을 내려다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분들은 멀리 보는 바보가 아니라 바로 보는 능력자였던 것 같은데...

배고프니 굶어죽지 말라며 핵 밀돈을 보태준 대통령은 백두산 화산 폭발까지 걱정하는 오늘의 세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형제니 앞 바다를 같이 쓰자고 했던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며 북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내려다 봤을까?

북한 핵시설을 미리 폭파하자는 동맹국을 만류한 대통령의 지금 생각은 어떠한가?

바보 새, 앨버트로스의 멋진 영상을 보면서 정말 바보 같은 상념에 빠져 본다. 멀리 보는 바보들이 그리워지는 병신년 새해다. [4]

권력만들기 비리와 부패사슬 직격 고발

영화는 판타지이지만 때로는 현실을 직설적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윤태호의 웹툰을 우민호가 감독한 ‘내부자들’은 내부자(고발자)들을 통해 한국사회 권력 막후의 비리와 부패사슬을 직격 고발한다. 이용만 당하고 폐기당한 정치강파와 인맥과 학맥 없는 무적 별종 검사, 의기투합해서 유력 대선후보 국회의원과 자동차재벌 회장, 유명신문사 논설주간 3인방의 권력창출을 위한 부정한 정치공학과 비자금 조성의 비리와 탈선 사생활을 파헤쳐 파멸시킨다. 묵직한 정치적 주제를 힘을 빼고 가벼운 스타일로 스피드하고 패셔너블하게 만들었다. 권력 막후세계의 검은 스캔들을 본질에 접근해서 깊이를 더했으면 문제작이 되었을 텐데 감독은 의도적으로 흥행에 집착해 재미있는 영화로 그쳤다. 이 영화는 단시일 내에 7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극장가의 기록을 세웠고, 감독 오리지널판 재상영에서도 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 영화가 더욱 화제가 된 것은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내 신세가 영화 ‘내부자들’에서 손모가지 잘린 이병헌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극장가는 정치권력의 부패, 재벌가들의 갑질, 수사기관의 권력 눈치 보기를 내용으로 한 영화에 관객들은 열광한다. 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베테랑’에 이어 ‘내부자들’이 그렇고 ‘검사외전’도 이런 내용의 영화로 볼 수 있다. 한국 관객들은 외국영화보다 왜 이런 현실 고발 한국영화에 열광할까? 금수저 흡수저, 헬조선, N포세대 등으로 표현하는 참담한 우리의 현실을 정부·정치인·재벌이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해 가슴통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이런 영화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베테랑’에서는 경찰 간부들이 유아무야한 트럭운전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재벌2세를 형사가 끈질기게 추적해 처단했고, ‘내부자들’에서는 상급자가 덮어버린 사건을 일개 검사가 악착같이 물고늘어져 권력

영화 ‘내부자들’을 보고



김 화

·분회 이사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3인방을 파멸시킨다.

현실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영화에서는 해피엔딩으로 시원하게 해결함으로써 관객들은 스크린을 통해 대리만족한다.

연예기획사와 대형술집을 운영하는 정치강파 안상구(이병헌)는 3천억원 정치비자금이 담긴 파일을 입수하고 한 건 크게 하고 싶지만 혼자 힘으로 역부족함을 깨닫고 평소 형님동생하며 친하게 지낸 우리사회 여론을 주도한 신문사 유명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에게 갖다 준다. 정치강파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송충이는 술값만 먹고 살아야 하는 법. 그러나 큰 욕심을 부리다 오히려 당한다. 논설주간은 유력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장필우(이경영)의 멘토다. 자동차재벌 오 회장(김홍파)은 유력 대선 후보 장필우에게 정경유착 정치적 보증을 위해 3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다. 만약 이 비자금 내역이 폭로되면 장필우의 대통령 꿈은 사라지고 오 회장이나 논설주간도 입지가 어려워진다. 권력창출을 위해 3인방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치강파 안상구에게서 비자금 원본파일을 회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술 한 잔 하자며 술집으로 간다. 이들 3인방의 술자리는 나체파티다.



영화 ‘내부자들’ 포스터.

정치강파 안상구는 3인방의 하수인 행동대원에게 붙잡혀 톱으로 손목이 잘린다. 정치강파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때를 기다린다. 이때 영화는 정석대로 ‘포라이’ 검사 우장훈(조승우)이 등장한다. 경찰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 검사가 되었다. 경찰로 있을 때 경찰대학 출신이 아니라고 인사 때마다 찬밥만 먹은 게 서러워 검사가 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되어도 지방대학 출신의 학맥 인맥이 시원찮은 무적 검사라 인사 때마다 경찰에 있을 때처럼 소외당한다.

승진을 눈앞에 두고 번번이 물먹은 우 검사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비자금 조사의 저격수가 되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열정적으로 수사를 하지만 우 검사는 비자금 파일을 찾지 못해 수사는 종결되고 좌천만 당한다. 그래도 우 검사는 비자금 조사를 포기하지 않고 은밀히 추적한다.

도피중인 정치강파를 우여곡절 끝에

만난 우 검사는 강파 안상구를 시골 아버지 집에 숨겨주면서 인간적으로 접근해 파일을 얻으려 한다. 우 검사는 “정의를 위해 비자금 파일을 폭로하자”고 강파를 설득한다. 강파는 “내가 협력한다면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복수를 위해서다”고 말한다.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한 조응천은 이병헌의 이대사를 기억하고 있을까. 검사와 강파는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어느 새 농담을 주고받는 친구가 된다.

마침내 강파 안상구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금 파일을 폭로한다. 여기서 사건은 해결되기는커녕 권력의 역풍을 맞는다. 안상구는 소속사 가수의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권력은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 우 검사도 수사의 벽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옷 벗을 지경에 이른다. 비자금 사건 수사를 평소에 못 마땅하게 여긴 부장검사는 사표를 종용한다. 우 검사는 무릎을 꿇고 “한 번 만 살려 달라”고 읊소한다. 부장검사는 “까라면 까고, 뭉개라면 뭉개는 게 검찰조직이야!”라고 일갈한다.

극적으로 살아난 우 검사는 대검 중수부로 영전한다. 비자금 수사를 속으로 포기하지 않은 우 검사는 정공법을 피해 게릴라전법으로 유력 대선 후보에게 접근한다. 사건해결은 의외로 영뚱하다. 법리가 아니라 사생활 동영상 유포다. 권력 3인방 나체 술파티에 참석한 우 검사는 그 현장을 촬영해 모든 디지털 매체에 퍼트린다. 강파는 목걸이에 감춰둔 비자금 원본을 검찰에 넘긴다. 그리고 논설주간을 찾아가 그의 글 쓰는 손목을 자르면서 “다시는 글 쓰지 마라”고 말한다.

유력대선후보는 정계를 떠나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재벌은 외국으로 피신하고, 논설주간은 “x됐네”하고 자신을 한탄한다. 이 영화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지만 극장을 나서는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무거운 우울이 내 가슴을 눌렀다. [4]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서울-거제간 2시간대 교통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미드’ ‘중드’ 그리고 ‘막드’

한국처럼 변화가 많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TV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다채널화되었다. 헤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TV 채널을 통해 안방에서 세계의 소식들을 동시에 접하게 되었다.

세계화된 한국 TV의 가장 큰 변화는 드라마이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드라마도 엄청난 양인데, 여기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심지어는 남미의 드라마까지 방영되고 있다. 한류로 인한 한국 드라마의 수출 속도도 빠르지만, 다채널화로 인한 외국 드라마의 수입 속도는 더 빠르다. 드라마는 수입 역조다.

이 가운데 가장 선두를 달리는 것이 역시 미국이다. 드라마를 통해 한국 시청자들은 이제 영화배우들 외에 미국의 안방극장 스타들도 친숙한 얼굴이 되었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미국 드라마(미드)는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들인데, 수사극과 과기물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NCIS 시리즈’ 같은 수사물은 선진적인 과학 수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그대로 비쳐진다. 또한 시체 해부 장면 등이 여과 없이 극화돼 안방물로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

흡혈귀 처형 등 처참한 장면

미국인들은 흡혈귀 류의 과기물을 좋아하는듯하다. ‘트와일라잇 시리즈’나 ‘슈퍼내추럴 시리즈’는 모두 뱀파이어나 늑대인간을 다루고 있는데, 흡혈이나 살인의 모습이 잔인하다. 흡혈 인간은 반 기독교적인 것으로 나오고, 이들의 처단 방법도 참수 같은 것으로 그려져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기독교의 악마주의에 대한 응징으로도 보이고, 마녀사냥이나 십자군 전쟁의 연장선상으로도 읽혀진다. 더욱이 요즘은 IS의 인질 참수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터여서 연상 작용마저 일으켜 더욱 참혹하다.

외계인의 지구 침공도 미국 드라마가 즐겨 다루는 소재 가운데 하나다. 초자연 현상과 이를 둘러싼 정부의 음모를 다룬 ‘X파일’ 시즌 10이 시즌 9 방영 14년 만에 지난 1월 24일부터 방송을 재개했다.

죽은 줄 알았던 멀더(데이비드 듀코브니)는 시골에서 은둔하고 있었고 스킵리(질리언 앤더슨)는 연방수사국(FBI)을 떠나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불가해한 현상들과 맞선다. 왕년의 영광을 재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X파일’이 인기를 끌던 1990년대에 비해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졌



유자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잔인하거나 재미없는 외국물
국내물은 윤리에 어긋난 설정

다. 한국에서는 그 시절이 ‘응답하라’고 부르고 있는 회상의 대상일 뿐이다. 이미 세상은 ‘X파일’ 류의 음모론을 넘어서고 있을 만큼 복잡해졌다. 드라마보다 더 기이하고 더 잔혹한 현상들을 접하며 산다. 과연 과거에서 돌아온 느린 템포의 ‘X파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무협지-역사물이 대중

중국 드라마(중드)는 무협류와 역사물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중국 채널이 열리면서 한국 시청자들은 중국의 드라마 제작 물량에 놀라고 있다. 하기가 14억의 인구에 유럽보다 큰 땅덩어리 아닌가? 그러나 많은 무협류에 성룡 같은 특정 배우들이 단골로 등장하고, 역사물은 궁중을 무대로 한 비사 등이 많다. 물량에 비해 다양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미나 세련미도 미드에 못 미친다.

그러나 가끔 ‘공자’나 ‘삼국지’ 같은, 잘 재현된 의미 있는 드라마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중국 드라마를 보는 재미라고 하겠다. 역사적 배경이나 정서가 우리와 가깝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엄청난 스케일과 인적 물적 물량 투입, 화려한 황실 의상과 과거를 재현해내는 세트 등은 눈길을 끈다. 중국 드라마는 본격 성장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듯하다. 스케일에 예술성을 더한 성과를 우리는 장이며우 같은 탁월한 연출가의 작품에서 이미 보고 있다.

KBS의 개그 콘서트에 막장 드라마를 비꼬는 코너가 있다. 한국 청년과 사귀던 러시아 처녀가 한국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본 나머지 한국 가정은 대부분 불륜으로 이뤄져 있고 사랑에 진실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돌아간다는 소재다. 웃기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웃음 속에 뼈가 있는 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차행진)는 MBC가 자사(自社)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MBC에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압구정 백야’는 생명 윤리에 어긋난 소지가 있고, 상황 설정이 극단적이며 자극적”이라며 “공익을 감안할 때 방통위의 제재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방송사가 방통위의 드라마 징계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패륜·폭언 난무

MBC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평일 오후 8시 55분~9시 30분에 드라마 ‘압구정 백야’를 방송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부잣집에 시집간 친모에게 복수하려고 여주인공 ‘백야’가 엄마의 의붓아들을 흘려 그 집 며느리가 된다는 줄거리다. 이 드라마에 대해 방통위가 ‘드라마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MBC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친모와 며느리로 둔갑한 딸이 서로를 향해 “어디, 버리지 같은 게, 인간 같지도 않은 게(내 아들을 낳봐)”, “버려지가 버려지를 낳았겠지” “(친모에게) 당신은 유부남을 꼬신 것밖에 한 게 없다”같은 막말을 내뱉으며 구타를 하는 장면 등을 제재의 근거로 수용했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패륜과 폭언이 난무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이를 복제한 비슷비슷한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지상파 드라마에 내린 법정 제재는 9건(징계1·경고3·주의5), 권고 등 행정지도는 11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자식 체벌 등 가정 폭력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대중이 흔히 접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쫓아내라고 주문한다. ‘사랑의 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맞으면서 자란 아이가 자신의 자녀에게 폭행을 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도 아동학대 전문가들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 같은 엽기적 사건들을 접하며 TV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TV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야 한다. TV가 흥기가 돼서야 되겠는가? [조영준]

신문사들 발행면수

신문업계가 비용절감을 위해 발행면수 축소 등 제작방식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신문사들이 ‘비용절감 카드’를 꺼내드는 이유는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장기불황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광고·협찬 예산을 줄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삼성이 광고·협찬 예산을 30% 가량 줄일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신문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쪼그라든 매출을 메우기 위해 선제적으로 경비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광고·협찬이 신문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70% 안팎이고 용지값, 잉크값 등 제작비와 인건비는 신문사 지출의 절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수는 신문사의 외형적 순위를 따지는 ABC부수인증 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반면 감면의 경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비용절감 카드로 유효할 수밖에 없다. 신문사가 그동안 광고비수기인 7~8월 감면에 들어간 이유다.

실제로 국내 최대 신문용지 공급업체인 전주페이퍼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전자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신문용지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했다. 앞서 1분기와 2분기 역시 2014년도 같은 기간보다 10.5%, 7.2%가량 빠졌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신문협회, 매체이용도

종이신문 독자층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전체 신문독자층은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이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언론 수용자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9.5%는 어떤 경로로든 신문을 읽고 있고, 해당 열독률 수치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결합 열독률’, 즉 지난 1주일간 종이신문을 비롯해 고정·이동형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문을 이용한 독자는 전체 응답자 5061명 가운데 79.5%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8명이 신문기사를 읽는다는 얘기다. 결합열독률은 2011년 처음 조사한 당시 73.6%를 기록한 이후 4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문기사 이용 경로는 종이·인터넷신문에서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인터넷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신문기사를 봤다는 응답이 6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정형 인터넷(39.8%), 종이신문(25.4%), IPTV(4.7%), 일반 휴대전화(0.9%) 순이었다. 모바일 인터넷, IPTV는 증가 추세인 반면, 고정형 인터넷과 종이신문은 감소 추세였다.

특히 종이신문 열독률은 25.4%로 2014년의 30.7%에 비해 5.3%p 하락했다. 2011년에 44.6%에 비하면 19.2%p나 떨어졌다. 1주일간 종이신문을 읽은 시간도 2014년에

저널리즘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축소등 경비절감 돌입

이어질 것이란 게 신문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한 종합일간지 경영기획실 고위 간부는 “신문용지 사용량이 2000년대 한 때 연간 130만톤까지 소비됐지만 지난해 57만톤까지 떨어졌고 향후 48만톤까지 하향 안정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지업체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신문사들은 본격적으로 광고예산이 집행되는 3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메이저신문 관계자는 “아직 감면 계획은 없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감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협회보 보도에 따르면 신문사들은 감면 외에 종판 마감시간을 당겨 제작인력의 근무체제를 조정함으로써 경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작년 10월부터 5판(초판)·10판·15판·20판(종판)까지 찍었던 것을 15판과 20판을 합본해 하루 3번씩만 찍기 시작했다. 종판 마감시간이 30분가량 앞당겨짐에 따라 제작 인력들의 근무체제에서 ‘비번’이 사라지면서 남은 인력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했다. 제작 횟수와 이에 따른 근무형태에 변화를 주면서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겨레도 지난해 3월부터 종이신문을 마지막 찍는 ‘종판’을 다음날 새벽 1시30분~2시에서 당일 자정 이전으로 앞당겼다. 디지털 퍼스트로 가기 위한 조치였지만 제작부서의 새벽 근무가 사라지면서 경비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4]

조사방법 개선 추진

비해 2.5분 감소해 하루 평균 7.9분으로 조사됐다.

한국신문협회는 “이같은 언론수용자 의식 조사 결과는 현재 종이신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매체이용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신문이용 독자가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신문의 매체력과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는 종이신문 열독률이나 가구독률 등으로 신문이용을 측정하고 있는 현행 매체이용조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신문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매체이용조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문협회는 올해 온·오프라인 신문 이용자 프로파일 조사 및 신문 종합평가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조사연구를 통해 신문매체 및 신문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종합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신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4~10월 진행할 예정인 조사연구에서 다뤄질 내용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문종합평가 방안 △신문독자(이용자) 및 열독자의 온오프라인 기사별/광고별 열독행태 △기사 열독 행위와 광고 열독 행위간의 상관관계 △타 매체와 신문의 차별성 △매체별 신뢰도, 만족도, 기사 중요도, 의제설정기능에 대한 인식 △신문에 대한 기대,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이다. [4]

‘자주국방·외교’ 촉구 봇물

美 核一中 信義 믿을 수 있을까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비롯된 전쟁 발발 긴장 국면과 4·13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정쟁 와중에서 2월 25일 취임 3주년을 맞은 4년차 박근혜 정부는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2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이 비핵화하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한국이 반대하는 북미 평화협정을 중국은 “같이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고위 소식통은 “22일 뉴욕에서 북-미 평화협정을 협상했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 후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논의를 공개 하는 등 한꺼번에 밀려온 안보 외교 정치 경제 관련 쓰나미에 2월 신문들은 박근혜정부의 위기를 경고하는 감시 기능과 1987년 체제 이후 느슨해진 국민의 사회결합 강화 교육기능을 충실히 했다.

일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미국과 북한 전략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신문 논객들은 강대국 국익이 우선하는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를 위해 선택해야 할 방향과 국민 통합 방안을 공론화했다. 워싱턴 특파원들은 북-미 평화 협정 논의에서 한국을 소외시킨 ‘통미봉남(通美 封南)’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고도미사일 방어 (THAAD·사드) 체계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미국 중국 수뇌부의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되겠지만 북미 평화협정이 성사될 경우 평택 미군기지는 한국의 안보 국방과 무관한 미군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예견이 적중할 수도 있게 됐다. 동북아 핵무기 균형이 깨지고 미국이 북한과 평화 협정을 협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핵우산과 중국 신뢰만 믿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중앙일보보는 조엘 위트미 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의 ‘북핵 위기의 주범은 미국의 잘못된 대북관’이란 칼럼을 통해 미국 대북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25년간 북한핵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과 대화했던 조엘 위트미 연구원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 없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 칼럼은 북한 관료가 “미국이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실제 우리를 때리지 않는 것은 숨겨진 공공이가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이 북한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을 통제하려 한 것”이라고 역측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설명하긴 했으며 미국이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며 군사적 조치도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2월 23일 ‘北의 확고한 비핵화 전제 없

신문시평



박석홍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전 언론법학회 감사

中대사 협박성 발언에 호된 비판
‘안보 선거이용 안된다’ 한목소리

이 평화협정 논의 안돼’라는 사실을 통해 “북한 핵실험 며칠 전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하며 “한반도 문제는 한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주도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도 동아일보 기고 칼럼에서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과의 대립을 각오해야 하며 일미(日美) 안보조약의 존립에도 문제가 생겨 미국 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는 2월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사드 한반도배치 문제로 중국의 안보를 훼손한다면 한·중(韓中)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대사는 “군비 경쟁만으로 한국의 안보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도 했다. 서울신문사설(2. 24)은 ‘중국 대사의 협박성 발언 주권침해다’ 라고 반박했고 조선일보사설도 “한국 안보 주권 무시하고 대사까지 ‘사드 협박’ 나선 중국”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2월25일 ‘美-中에 한반도 운명 맡기고도 정치권은 對北정쟁인가’라는 사실로 “테러지원법,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를 놓고 정쟁에 골몰한 국회의원들은 100여 년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막지 못한 부패한 위정자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할 때 중공군의 한국 침략을 사죄하지 않았으며 시진핑은 항미원조보가위국(抗米援朝保家衛國)이라고 했다.

중국의 한국침략 사죄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천안문 군사 열병식에 참가하기 전에 타결했어야 할 여젠다였다. 국가간에도 할 말은 해야 신뢰와 존경

을 받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민족 분단은 장기화 될 것이지만 일본의 군국화 속도가 변수다. 임진왜란 중 왜(倭)와 명(明)이 한반도 분할 점령을 논의했으나 두 나라 모두 망한 역사가 21세기에 반복 되지 않기를 바란다.

‘햇볕정책 실패’ 검증 미흡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7일 당 ‘경제 아카데미’ 강연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재벌을 고착화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양극화 현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서민이 뽑아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자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며 “재벌과 어울리면서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거 대책위원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실패했

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 이상돈 위원장의 야당 모순과 맹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신문이 검증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7·4, 6·15, 10·4 선언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때가 됐다. “미국 동맹국은 스스로 자신의 안보책임을 져야한다”는 닉슨 독트린 선언에 따라 제3공화국은 1972년 북한의 통일3원칙에 동조 하는 7·4공동 성명을 체결했으나 1974년 8월 15일 7·4 공동성명을 폐기하고 평화통일3원칙을 천명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월 15일 북한연방제에 동의한 6·15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8557억원을 북에 지원했고 노무현 정부는 2007년 NLL 무효화를 획책하는 방안이 포함된 104 선언문을 채택하고 1조8833억원을 북으로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30억달러를 대북 지원했으나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응답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어리석고 한심하다”며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17일 사설 ‘전쟁 불안감 또 부추기는 野, 핵 위기에도 선거만 보이나’를 통해 “야당이 엄중한 안보 위기는 외면한 채 선거에서 단기 이익만 따지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인다면 수권(受權)정당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2월 신문에 안보관련 사실이 쏟아졌으나 역대 최악의 19대 국회와 YS DJ MB 정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치개혁 촉구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 [4]

‘7 코리언 파이터’ 메이저리그 달군다

2016 美 프로야구 관전법

야구는 예측불허의 경기다. 바로 그것이 매력이다. 그리고 생각의 허를 찌른 홈런이라는 파울의 수용이 팬들을 열광케 한다. 펜스를 넘어가 버린 타구는 잡을 수 없다. 그 파울성 타구를 최대의 가치로 인정한 야구야말로 언제나 이변을 부른다.

올해 메이저리그엔 또 하나의 리그 속의 리그가 생겨 한국의 야구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비단 한국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팬들, 그리고 일본과 대만에 까지도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메이저리그에 한국출신의 ‘거물 7’이 한 시즌에서 격돌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래본 적이 없기에 더 기대가 크다.

2016년 메이저리그에 코리언 빅리거 7, ‘2준(駿) 3호(虎) 쌍룡(龍)’이 등장한다. 2준이란 발 빠른 3박자 준마 김현수와 추신수를 이르는 것이고 3호 즉 3 Tiger는 강정호, 박병호, 이대호를 말한다. 쌍룡은 선발의 류현진과 끝판왕 오승환 아닌가. 서부영화로 빗대자면 이 7명의 무법자들이 포효하는 메이저리그에 한국팬들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팬들의 첫 번째 관심은 이들 3 Tiger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홈런을 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전망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강정호는 이미 메이저리그에 적응하고 있다. 그는 이미 루키가 아니다. 사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지난해 성공적인 메이저리그 데뷔가 박병호와 이대호를 한꺼번에 불러들여 홈런 3국지를 연출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강정호가 한 만큼 박병호와 이대호도 해낼 수 있다. “30홈런 이상만 때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미국 언론이 미네소타 트윈스 유니폼을 입은 내야수 박병호의 올 시즌 성적을 예상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병호는 2015시즌 한국에서 타율 0.343, 53홈런, 146타점, 출루율 0.436, 장타율 0.714를 기록했다. 그러나 박병호가 지난해 한국에서 세웠던 성적을 메이저리그에서 비슷하게 내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역량과 비교하면 30홈런을 기대하는 것은 평가이상일 수 있다. 그래도 박병호에게 최소 20홈런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 기대가 실린다.

2014년 시즌 넥센에서 박병호와 함께 뛰었던 강정호는 그해 타율 0.356, 40홈런, 출루율 0.459, 장타율 0.739의 성적을 냈고, 지난해 피츠버그에서 타율 0.287, 15홈런, 출루율 0.355, 장타율 0.461을 기록했다.

미국의 통계 분석 사이트인 ‘팬그래프’는 박병호가 올해 타율 0.254, 출루율 0.328, 장타율 0.479, 홈런 30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박병호의 미네소타는 2012년 이후 한 번도 30홈런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다. 그러기에 만약 박병호가 30홈런을 기록한다면 미네소타가 떠들썩해 질 것이 분명하다.

강정호는 작년 성적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작년에는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만 적당히 한 것 같다”며 “아직 보여줄 게 많다”고 올 시즌을 베푼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는 강정호에게는 또한



최명우

·본보 편집위원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1년 계약인 만큼 최근 일본에서 보인 것처럼 발군의 활약을 보인다면 더 큰 금액과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4년 계약을 맺은 박병호보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린드와의 플레톤 시스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우투수에게도 강한 면모를 보여 출전 경기를 늘

홈런경쟁 강정호-박병호-이대호 얼마나 칠지 타격 김현수-추신수 투수 류현진-오승환 관심



강정호



박병호



이대호



김현수



추신수



류현진

박병호 그리고 이대호와의 라이벌 경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I’m Back.’ 무릎 부상을 극복하고 돌아온 강정호에게 시즌 전부터 팬들은 환호하고 있다.

지난해 이대호는 일본 정상급 타자였다. 지난해 141경기 타율 2할8푼2리, 31홈런, 98타점을 올리며 소프트뱅크의 2년 연속 일본시리즈 진출을 이끌었다. 야쿠르트와 일본시리즈에서 타율 5할, 2홈런, 8타점으로 시리즈 MVP까지 올랐다.

소프트뱅크가 3년 최대 18억 엔(약 183억 원)의 최고 대우를 제시했지만 이대호는 메이저리그를 선택했다. 빅리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결기에서 계약의 불리까지 감수한 것이다. 조금은 많은 나이와 거구인 만큼 느린 발이 계약상의 약점으로 작용했다

러 간 다 면 이 대 호 야 말로 대 호 로 포 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강 정 호 박병호 이대호의 3호는 호랑이답게 활약하면 된다.

그러나 이들보다 한층 더 주목을 받는 코리언파이터가 김현수다.

김현수야말로 정교한 타격과 높은 출루율에서 단단한 신뢰를 받고 있는 팀의 선봉 공격수다. 새내기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승환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김현수 외에도 외야수 텍스터 파울러와 3년 3500만 달러에 계약했다.

파울러는 타선에서는 선두타자를 맡을 예정이며, 수비에서는 팀의 고민거리였던 우익수를 맡는다. 그렇다면 김현수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볼티모어의 외야수 보강은 예고됐던 일이다. 중견수 아담 존스 이외에 마땅한 주전 후보를 찾지 못한 볼티모어는 마크 트럼보를 트레이드로 영입하고 김현수와 2년 계약을 맺으며 외야 물갈이에 나섰다. 이번 파울러 영입은 그것의 마무리다.

김현수는 남은 한 자리인 좌익수 자리에 들어설 것이다.

타선은 일단 하위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성능이 검증되는 대로 선봉에 오를 수 있다. 그에게는 홈런도 있다. 많게는 20홈런도 때려낼 수 있을 것이다.

‘타격 머신’ 김현수는 다른 선수와 페이스를 비교할 때 내가 오히려 빠른 것 같으며 자신감을 보인다.

이미 성공 아이콘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추신수와도 멋진 경쟁을 펼칠 만하다. 한국산 준마 김현수와 추신수의 질주가 미국은 물론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새롭게 등지를 뜬 오승환은 일찌감치 스프링캠프에 합류했다. 세인트루이스는 지난 시즌 리그 최고수준의 마운드를 자랑했었다. 그런 리그 최고 수준의 마운드, 또 불펜을 갖춰음에도 불구하고 오승환 선수를 영입한 것은 그만큼 그의 기량에 대한 믿음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팀에서도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오승환은 메이저리그라는 큰물에서 ‘돌직구’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이 기대하고 또 걱정하는 대표적 케이스다.

팀에서는 오승환이 던진 공의 움직임과 무게,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 마무리로 오래 활약한 경험과 배짱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

세인트루이스에는 리그 최고의 마무리 로젠탈이 있다. 오승환은 그에 앞서서 이닝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거나 상황에 따라서 마무리로 나서는 중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메이저리그를 밟은 선두주자는 투수들이었다. 박찬호의 ‘호풍’으로 시작해 지금은 류현진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어깨수술로 지난 한 시즌을 통째로 거른 류현진이 올해 LA 다저스 마운드로 돌아왔다. 그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나 자신에 찬 모습이 그의 부활에 신뢰감을 더하고 있다. 잭 그레인키가 떠난 다저스에 류현진의 존재는 한층 크고 무거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무리하지 않게 서서히 발동을 걸겠다는 류현진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이 안쓰럽다. 그러나 류현진이 돌아온 2016년의 메이저리그는 다른 6명의 코리언파이터들과 함께 뜨겁게 달아올랐을 것이다. [K]

해외여행 다리 떨리기전 다녀야 한다

노부부, 관광 뒷전 버서서 기다려

일본 도쿄 ‘번개 여행을 다녀왔다. 자유여행 일정이 포함된 패키지여행이라 참가자 중 내 나이가 가장 많을 것이라 예측했다. 시즈오카 공항에 내려 가이드가 인원을 체크할 때 보니 지팡이에 의존한 노부부가 연장자다. 딸과 사위가 모시고 왔으며 초등학생 외손자 남매도 방학이라 함께 왔다. 다음 날 딸에게 슬쩍 어른들의 연세를 물었더니 70대 중반이라한다. 흠바람에 그을린 얼굴에 굵게 패인 주름살이 실제 나이 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인다.

노부부는 단체로 움직일 때 자신들 때문에 일정 진행에 지장을 줄까봐 신경 쓰는 게 역력하다. 첫 방문지 하코네국립공원은 눈이 얼어붙어 젊은이들도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간다. 350년 넘는 삼나무 숲이 우거진 하코네는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아시호수에 비치는 후지산이 아름다운 명소지만 구름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아쉽다. 노부부는 관광버스에서 내려 자식들만 다녀오라며 손짓을 한다. 한 바퀴 돌아 내려오니 두 분은 버스에 탄 채 일행을 기다린다.

도쿄의 인사동인 아사쿠사(淺草)는 에도시대 정취가 남아 있는 거리로 전통과자와 다양한 기념품을 파는 점포가 길게 늘어서 볼거리가 푸짐하다. 다리가 지치면 두 사람이 30분에 8만원 내면 미인이 끄는 인력거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다. 노부부는 가볍게 사찰 경내를 둘러 본 뒤 버스가 도착한다는 지점에 미리 가서 기다린다.

도쿄 거미줄 도로망… 체증은 상습

도쿄의 도로망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도쿄 인구는 1300만명으로 요코하마 등 수도권까지 합치면 3000만 명이 넘는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땅속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고가위로 모노레일과 신칸센 열차가 달린다. 고가 다리와 터널 구조가 전체의 90%를 넘는다.

도시고속도로는 대부분 곡선이고 빌딩 숲이 가로수다. 빌딩 10층 높이로도 버스가 지난다. 우리나라 같으면 소음 공해라고 난리가 났을 법하다. 열악한 도로에 상습 체증까지 겹쳐 교통지옥을 방불케 한다.

도쿄 변화가 긴자와 젊은이의 거리 하라주크를 둘러 볼 때는 주차 공간이 없어 가이드는 몇 시까지 내린 곳으로 오라고 알려준다. 관광버스는 주위를 빙빙 돌다가 약속 시간에 맞춰 온다. 노부부는 아예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도심에 돌다가 온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며 가이드가 노부부에게 “즐거우셨느냐”고 인사를 건네자 “집이 가장 편해”라는 대답 속에 피로감이 묻어난다.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딸은 부모님께 효도관광 시켜드렸다고 자부할 터이고, 노부부는 귀가하여 딸과 사위 덕에 일본 구경 잘 했다고 자랑하겠지만 불편한 진실이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해야지 다리가 떨리면 어렵다.

日本도쿄 번개여행記

이규섭 본회회우·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강사



유카타를 입고 들어 갈 수 있는 도심 속 야외 족욕탕의 필자.



도쿄도신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신주쿠 도심.

도심 속 온천, 에도시대 정취 물씬

도쿄의 인공 섬 오다이바는 자유의 여신상과 레인보우 브리지를 배경으로 젊은이들이 인증 샷을 날리는 데이트 명소다. 대형 쇼핑몰, 멀티플렉스 시네마, 승용차 시승이 가능한 도요타 쇼룸이 있으나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유럽풍 쇼핑센터 ‘비너스 포트’ 입구엔 여성 로봇이 입술을 달짝거리고 손짓을 하며 안내를 하는 게 색다르다. 바다색깔 천장에서 물고기가 유영하는 조명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어둠이 내리자 후지 TV 외벽은 화려한 전광판이 되어 야경을 수놓는다. 일본다운 색채다.

일본 겨울여행의 백미는 역시 온천욕이다. 오다이바의 오오에도 온천의 묘미는 유카타를 입고 에도시대를 재현한 시설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 1400m의 지하수에서 솟아오르는 천연 온천탕의 외관도 에도시대건물 모형이다. 온천탕은 우리네 찜질방 입장 순서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프런트에서 손목밴드를 받은 뒤 유카타 사이즈와 색상을 골라 허리끈 ‘오비’를 받는다. 피팅룸으로 가서 손목밴드에 적힌 락카번호 함에 옷을 보관하고 유카타로 갈아입는데 속옷은 입는 게 예의. ‘오비’ 매는법은 그림으로 붙여 놓아 참조하면 된다.



350년 넘는 삼나무 숲이 우거진 하코네국립공원.

피팅룸을 나와 안으로 들어가면 에도시대를 재현한 저잣거리다. 먹거리 즐길거리가 푸짐한 별천지다. 일본 정통 요리부터 야타이(포장마차)까지 다양하다. 라멘, 초밥, 꼬치구이, 우동은 물론 에도의 정서가 풍기는 개별실에서 가이세키 요리도 맛볼 수 있다. 한미촌(韓

味村) 간판의 한국음식점과 중화요리에 흡연이 가능하다는 식당도 보인다. 가게 주인을 빼고 모두가 유카타 차림이라 동질성을 느낀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일본 젊은이들이 많은 것도 특이하다. 사케 한 잔 가볍게 마셨다. 맥주 컵 보다 작은 도자기 컵 한 잔에 500엔, 생맥주 500CC는 580엔. 계산은 손목밴드로 한 뒤 퇴장할 때 카운터에서 정산하면 되니 편리하다. 재미로 미래를 점쳐 볼 수 있는 점술 집, 옛날 과자를 파는 가게도 보인다. 고무공이나 인형을 건지며 노는 스쿠이베에는 어린 시절 시골 장터에서 ‘물방개 게임’을 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유카타를 입고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야외 족욕탕.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에서 야외 족욕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색다르다. 본격적인 온천은 탈의용 락커에 들러 유카타와 속옷을 벗고 대욕탕으로 가면된다. 저온 사우나 암반소금욕탕 등 이벤트 탕이 여럿 있지만 두한족열(頭寒足熱)의 노천탕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입욕료는 성인 2,000엔.

도쿄도신청사의 빛과 그림자

공짜구경은 서둘러야 한다. 인파가 몰리면 줄을 서야 한다. 신주쿠 한복판에 우뚝 솟은 도쿄도신청사 전망대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이라 해외관광객이 북적인다. 오전 9시 30분 개장 전에 도착 했는데도 관광버스가 주변에 길게 늘어서 있다. 한국과 중국 관광객이 대부분이다. 도쿄 스카이트리 전망대 입장료가 3090엔이고 서울 남산N타워 전망대 입장권은 1만원인데 공짜로 도쿄도심을 조망할 수 있으니 관광회사가 일정에 끼워 넣는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니 거대한 도시 도쿄가 한눈에 펼쳐진다. 333m 높이의 도쿄타워가 내려다보이고 스카이트리, 도쿄돔도 장난감처럼 작아 보인다. 도심 속 푸른 숲은 메이저신궁. 창건 때 전국에서 기증한 10만 그루 365종의 인공림이 100여 년 동안 울창한 숲을 이뤘다. 남산N타워에서 바라보면 창경궁과 종묘 등 도심 속 숲뿐만 아니라 북한산과 도봉산이 등뼈처럼 이어지지만 도쿄는 회색의 빌딩 숲이다. 맑은 날엔 후지산이 보인다는데 여기서도 구름 뒤에 숨었다.

1992년에 문을 연 도쿄도신청사는 일본이 버블경기로 치달던 시점에 건설됐고, 바벨탑에 빗대어 ‘버블 탑’이라 부르기도 했다. 준공 당시 48층 243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나 2007년 도쿄미드타운(248m)이 등장하면서 뒤로 밀렸다.

도쿄도신청사 건물은 상층부에 두 개의 탑을 가진 파사드로 디자인돼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연상케 한다지만 위압적이다. 무료 전망대 운영으로 연간 100만 명 넘는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지만 내부 부실로 천문학적인 보수비가 들어가 애플 단지로 전락했더니 명암이 교차되는 건물이다. [4]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 역사 학계를 지배한 친일 식민사학자들은 한국인의 탈을 쓴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사관의 폐해는 한국사의 진실을 왜곡 날조하고 폄훼하여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열등감을 안겨주었다는 점에 있다. 주체적 국민에게 노예의식을 심어주었다는 죄과가 크다.

광복 70년이 되도록 한국사는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가 창작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편수회에서 식민사학을 만들어낸 자들과 그 제자들이 대를 이어 한국 사학계의 주류로 군림하면서 역사교육을 주물러왔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같이 해마다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기관이 앞장서 일제 식민사관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역사교육의 참담한 현실이다.

광복 후 우리나라는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들에게 숙청당하는, 참으로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를 편하게 하려고 친일파를 끌어안은 미군정에 이어 이승만정권이 반민특위를 강제해산함으로써 친일파를 처단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애국적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 역사학계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사편수회 수사관보를 지낸 이병도(李丙燾)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자리 잡고 일제 황국식민사관을 한국사의 정설로 둔갑시켰다.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식민사관은 그의 제자와 손제자로 이어져 오늘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게 친일 황국식민사학은 실증사학이란 허울 좋은 이름을 내걸고 민족사학을 깔아 뭉개왔던 것이다.

이들 식민사학자들이 한국사를 왜곡 날조하고 폄훼한 주요 골자는 이렇다. 단군조선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신화다. 중국에서 온 위만(衛滿)이 고조선을 통치하면서 비로소 국가가 되었다.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한사군(漢四郡)은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사실이 아니다. 한반도 남부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部)의 지배를 받았다. 한국은 이렇게 처음부터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요는 한국사는 중

植民史學 극복 절실하다

溫故知新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국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에 한국을 점령한 뒤 통치의 어려움을 절감했다. 한국인들이 단군왕검(檀君王儉)을 국조로 받들고, 고대에 백제가 일본에 문화를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사를 왜곡 날조하기 위해 조선사편수회를 만든 것이다. 이들은 한국사 초기에 한반도 북부에는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남부에는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날조했다. 이병도는 고조선 사회를 미개사회로 규정하고 단군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중국의 식민정권인 한사군의 위치를 만주가 아닌 한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재 신채호(申采浩)와 위당 정인보(鄭寅普), 그리고 그들의 맥을 잇는 윤내현과 최재석 같은 정통 민족사학자들은 이런 강단사학자들에 맞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병도가 열성적으로 활약한 조선사편수회가 〈조선사〉를 편찬한 이유는 ‘일선(日鮮) 합병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조선인들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식민사학자들은 임나일본부를 주장하기 위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김부식의 날조로 몰았다. 김원룡(金元龍) 같은 식민사학자는 고고학적 증거가 자주 나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도저히 부인만 할 수가 없으니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란 해괴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어쨌거나 서기 300년대, 4세기까지 한반도에서는 삼국이란 왕국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고 허튼 주장이다.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인 이만열은 식민사관을 이렇게 정리했다.

‘식민사관은 일제가 한국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했다. 일제는 어용사학들을 동원해 그들의 식민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사〉를 편찬했다. 기본내용은 한

국사의 상한 연대를 삭감하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가 일본보다 더 오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사는 고대부터 외세의 지배를 받았으면서 단군을 부인하고 중국인 기자와 위만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강변했다. 세 번째는 한국사는 졸론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네 번째는 한국문화는 외국에서 왔고, 외국 것을 모방했다는 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하여 나치체제의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일본제국주의가 청산되지 못했다.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패전 70주년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일제의 죄악상을 부정하고 온갖 망언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라. 이는 무엇 때문인가. 일본제국주의가 창안한 황국사관, 즉 천황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일본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매국적 친일 황국식민사학자들을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군이 없으면 고조선도 없고, 고조선이 없으면 한국사도 없다. 이병도도 죽기 직전에 인정한 단군과 고조선을 그의 제자들은 아직도 부정하고 있다. 자기들만 부정하면 뭐라 하지 않겠지만 그 헛된 학설을 계속 주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런 허황된 식민사관을 심어주고 있으니 상황이 심각하다. 식민사관이 뱃속까지 들고, 영혼까지 병든 것이다. 지난 2007년 고교 국사교과서에 이렇게 실렸다.

‘족장사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었다.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이처럼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한 마디가 교과서에 실리는데 근 6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 한사군은 발해만 연안 요서 지방에 있었다. 한 무제(武帝)가 고조선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 자신의 장군 순체와 양복을 처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고조선의 내분 때문에 어부지리로 승리를 했는데, 그나마 얻은 땅은 겨우 고조선의 서부 변경 요서의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고조선이 망한 뒤에 설치했다는 한사군은 고조선이 있던 요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한사군이 평양 부근 대동강 유역이라니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수작이다. 고조선을 멸하고 한사군을 세운 곳이 오늘의 평양이라면 이야말로 중국의 동북공정을 뒷받침하는 매국, 식민, 사대주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북한 땅은 고대에는 중국의 지배에 있었다는 설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사학자라고 사학계를 주름잡으며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큰일이다.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사를 자기네 당나라 변방의 지방정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 있던 나라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거란족의 요나라도, 여진족의 금나라도, 몽골족의 원나라도, 여진족의 청나라의 역사도 모두 중국사가 되고, 칭기즈칸도, 누르하치도 모두 중국인으로 둔갑한 것이다.

중국의 역사지도집에는 만리장성의 동단이 황해도 수안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이병도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탐원공정, 단대공정이란 중국사의 상한을 더 올려 잡기 위한 것이다. 중국인들이 그동안 동이족 오랑캐의 역사라고 멸시하던 동이족의 유적, 고조선의 유적이 중국의 은허(殷墟)보다 훨씬 오래 전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사의 기원을 황하문명(黃河文明)이라고 하지 않고 요하문명을 중국사의 시원으로 날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이족도 중국인의 조상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이제는 단군왕검도 저희 조상이라고 우기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단군 할아버지까지 중국인의 조상으로 빼앗기면 한국사는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

새해 언론 지원사업비 498억 확정

언론진흥재단, 2016 사업계획 발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지난 1월 7일과 8일 기자간담회와 사업설명회를 잇달아 열고 총 498억원의 201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5개 중점추진 분야와 예산을 보면 ▲뉴스미디어 디지털혁신 지원 83억 원 ▲언론인 전문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25억 원 ▲언론 신뢰도 및 언론 공익사업 지원 67억 원 ▲뉴스 리터러시 향상 107억 원 ▲언론인 복지 향상 216억 원 등 총 498억원이다.

중점추진 분야별로 보면 언론의 디지털퍼스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CMS 구축 17억 원, 모바일뉴스 공용인

프라 구축 11억 5000만원, 인터넷신문 제작인프라 구축 8억 원, 인터랙티브뉴스 제작지원 5억 원 등 4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BIGKinds)구축과 보급에도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언론의 신뢰 제고를 위해 뉴스 트러스트 운영에 8억 6000만원, 신문윤리심의회 17억 8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NIE 및 리터러시 프로그램 확대에 40억 3000만원, 소외계층 신문구독료 지원에

36억 7000만원 등 국민의 리터러시 향상에도 1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또한 언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총 216억원을 들여 생활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제도를 시중 최저금리(2.25%)로 운영한다.

재단은 작년에 이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심사 기준을 반영해 일간·주간·인터넷신문, 잡지사의 심사 시 ABC 협회 가입 또는 광고 자율심의 참여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

원로에세이 — 어제 오늘 사이

剩餘人間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이사, 동경지사장
·전 KOC위원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올해 46 회째를 맞는 다보스포럼의 주제가 상징하듯 산업구조의 혁명적인 전환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보스포럼 ‘미래고용보고서’는 놀랍게도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5년간 7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백만개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분석했다.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저서에서 제리 카플란은 ‘똑똑한 로봇’ 형태를 갖게 되는 인공지능이 조만간 우리가 현재 소화하고 있는 수많은 일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었다. 이 말은 스티브 호킹 박사, 빌 게이츠 등이 로봇인공지능(AI)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과 일맥상통해서 충격적이다. 우선 유럽 바둑챔피언을 꺾은 구글의 알파고와 세계 최강인 이세돌 9단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덤빈 것 자체가 승부를 떠나 인간에 도전하는 기계의 오만한 저항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엘드리칸 이름의 스윙로봇은 미국PGA투어 피닉스오픈 프로암 행사에서 120m 홀컵에 홀인원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無人운전의 드론 전성시대, 의료계 로봇, 금융혁신, 교육전반, 모바일 혁신(OTT), 간편 결제수단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 뇌 과학이 인간을 배제하는 촉매역할 중이다.

증기기관이 촉발한 1차 산업혁명에서 노동능력이 기계로 대체됨으로써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생활의 바탕을 잃고 낭패를 당했지만 인류 전체를 위한 문명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커다란 진전이었으며 조립라인을 통한 대량생산의 2차, 인터넷이 이끈 3차 산업혁명이 모두 인간위주인데 반해 사물인터넷(IoT) 로봇인공지능(AI) 등 기술융합을 통한 대변혁의 4차는 인간소외, 인간배제의 인상이 짙게 풍긴다.

카플란은 머지않아 화이트칼라인 판사, 의사, 기자와 운송업자 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했다. 법 관련 실무의 상당부분은 판례 등 자료를 조사하는 일이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암을 진단하는 확률이 높고 일부 스포츠와 증시보도기사는 이미 로봇프로그램이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기계에 의한 인간소외가 현실적으로 임박했다는 뜻이다. 미래학자 레미 러프킨은 “0.1%의 창의적인 사람과 그를 알아보는 0.9%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9%는 잉여인간”이라고 설파했었다. 그것이 어떤 역할도 맡지 못하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아 있는 인간, 소수가 일으킨 변화에 감탄만 하는 수동적인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의 주장은 다소의 과장은 있지만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을 제대로 진단한 先見처럼 느껴진다.

‘쓰고 난 나머지’라는 것이 잉여의 辭典적 정의인데 100세 시대를 구가하는 오늘, 팽배하는 수많은 노령인구는 이미 사회적 잉여인간으로 치부되지 오래이며 앞으로 기계문명에 밀려 일터를 잃게 될 수많은 계층의 剩餘人力은 생존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게 분명하다.

네발 달린 동물들은 母體에서 태어나자마자 툭툭 털고 일어나 생존의 현장에 뛰어들지만 인간은 성년에 이르는 과정과 노후까지 감안한다면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사회적 기능의 측면에서 잉여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글로벌금융사 UBS는 노동시장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템, 법적·제도적 환경을 수치화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국가순위에서 한국은 25위, 그 중 기술 23위, 교육 19위였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은 139개국 중 83위로 열악해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인류의 복지와 문명을 한차원 높이는 수순을 밟겠지만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까지의 많은 갈등과 불편, 특히 인간소외를 극대화하는 잉여인간의 量産을 어떻게 극복하며 풀어나가야 할지는 우리들이 떠안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해학과 기지로 유명한 A 비어스는 그의 저서 ‘惡魔의 사전’에서 “자기 마음속에 그리는 제 모습에 대하여 저 혼자 황홀하게 도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인간을 묘사했는데 음미의 여지가 있는 풍자처럼 와 닿는다. [출처]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④

車운전 중지하면 육체-정신 급속쇠퇴

학술지 미국 노인병학지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는 최근 고령자가 운전을 정지당하거나 포기하면 육체와 정신적 기능이 급속하게 쇠퇴한다는 컬럼비아대학 손상역학 및 예방센터(Center for Injury Epidemiology and Prevention) 소장 리(Guohua Li)박사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통안전과 운전으로 얻는 고령자들의 건강상 이득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에 대해 큰 과제를 던져주었다면서 고령운전자는 위험하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있는데 고령자라 해서 일정 연령 이상에 대해 운

전을 금지조치하기보다 어떤 기준을 마련하여 대책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야간운전, 자동차밀집거리, 출퇴근시간 그리고 잘 모르는 길로 가야 할 때에는 스스로 운전을 줄이고 시력감퇴, 목 디스크에 따른 근육고정과 같은 건강상 문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라고 했다.

연구논문 16편 중 5편은 우울증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모두에서 운전을 중지하면 우울증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 박사는 운전중지와 우울증이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운전중지에 따른 건강상 영향은 생각 보다 광범위했다고 했다.

리 박사는 또 다른 연구에서도 고령자가 운전을 중지한 후 육체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기억력과 정신기능도 감퇴가 촉진되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운전을 중지하면 중지하지 않은 고령자들과 비교하여 중지 후 3~5년 사이에 사망위험이 더 높았다고 했다.

미국 노화연구 연합회 대변인인 벡츠(Marian Betz) 박사는 이에 대해 이번 연구결과를 교

전을 금지조치하기보다 어떤 기준을 마련하여 대책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야간운전, 자동차밀집거리, 출퇴근시간 그리고 잘 모르는 길로 가야 할 때에는 스스로 운전을 줄이고 시력감퇴, 목 디스크에 따른 근육고정과 같은 건강상 문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라고 했다.

실제로 고령자들 중에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알고 운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벡츠 박사는 자동차 운전이 생활의 일부가 된 오늘 고령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면 존재감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격리 또는 고립감을 느끼게 하여 우울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으면서 가능한 한 고령자들이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다. [출처]

2016 始山祭에 초대합니다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丙申年 새해를 맞아 올 한해의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 행사를 갖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산제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산제장소 : 북한산 향로봉 기슭
- 집합장소 : 불광역(전철 3호선·6호선 2번 출구 구내 만남의 장소)
- 집합일시 : 2016년 3월 22일(화요일) 오전 10시
- 산행코스 : 북한산 둘레길 7구간 탐방
- 문의전화 : 이상호 회 장 (010-3855-8624)
나용경 총 무 (010-2691-0084)
- 시산제 후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 총회장소 : 통나무집(02-356-5533·구기터널방향 10분 거리) 오후 1시 반

회우동정

가나다순

6·25 참전유공자에 강연



곽찬호(일본 織研신문 논설위원)회우= 일본 일간지 섬연 신문의 편집 고문, 논설위원 겸 서울 주재기자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역 기자인 회우는 1월 28일 오전 11시 성동구 보훈회관에서 ‘2016년 한국 경제를 예측한다’를 주제로 강연. 대상은 곽회우가 고문으로 있는 6·25 참전 국가 유공자회 소속 성동구 운영위원 95명.



를 계기로 지난 1967년 10월 10일 국내 최초로 방송한 라디오 드라마 ‘데이션다이(위안부)’의 주제를 찾아 악보를 복원했다. 당시 30부작으로 기획한 그 드라마는 친일파들의 항의로 ‘경고’를 받고 7부작으로 끝나면서 개인적으로도 6개월견책을 받았었다.

제14대 방송기자클럽 회장 취임



이홍기(KBS인터넷 대표이사)회우= 2월 25일 오전 11시 여의도 컨싱턴 호텔 15층 센트럴파크에서 제14대 방송기자클럽(Bjc클럽)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8년 2월말까지.

요셉대학서 생활영어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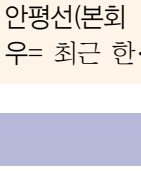
최선록(전 서울신문 편집 부국장)회우= 경기 용인시 요셉대학 생활영어 강사인 회우는 3월 2일부터 매주 용인시 보라성당 요셉대학 이사 및 전임 강사로 생활영어를 강의한다.

북한교과서 왜곡 사례 소개



서옥식(본회 이사·전 연합뉴스 편집국장)회우= 지난해 12월 21일과 12월 30일, 금년 1월 30일 각각 VOA(미국의 소리 방송), 국군방송, KBS 한민족방송에 출연해 북한 교과서의 거짓 왜곡 조작 낱조 사례를 소개했다.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악보 복원



안평선(본회 이사·전 동아방송 PD)회우= 최근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

주소변경

남재희 회우= 서울 마포구 독막로20나길 21, 203-404(상수동, 래미안 밤섬리베뉴 II)

이향숙 회우= 서울 성동구 마장로42길 16, 5동 302호 (마장동 세립아파트)

고침 : 지난 2월호 양성목 회우의 주소변경은 착오이며 이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팔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6년 1월 30일 부터 2월 26일까지)

고덕환(16)	김경태(16)	김영길(16)	김윤재(16)	김진현(16)	김영길(16)
김충수(13,14)	라용경(16)	박석흥(16)	손주환(16)	송충섭(16)	양성목(16)
유자호(15)	이향숙(16)	이태영(16)	임상학(16)	장석영(16)	정준창(16)
제재형(16)					

회우경조사

김성배(전 KBS 제주 총국장)회우= 2월 21일 미수(米壽)연

노재성(전 국민일보 부사장)회우= 2월 27일 장남 선종 군 결혼

선정은(전 KBS 라디오 편성부장)회우= 1월 16일 장남 한별 군 결혼

안광식(전 한국언론학회 회장)회우= 2월 27일 장남 세현 군 결혼

한양인(전 문화일보 편집위원)회우= 2월 8일 모친상

김경태(전 서울경제 편집부국장)회우= 2월 17일 부인상

박석흥(본보 편집위원)회우= 2월 22일 모친상

사우회 소식

2016년 정기총회 개최

KBS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 신관 아트홀에서 2016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 지난해의 결산과 2016년도 사업 계획을 결의하고 회비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한편 사우회 발전 기금은 25년 만에 1억 5천 71만원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1991년 50만원으로 시작한 발전 기금은 매년 기탁금이 늘어나 지난해 말로 1억 5천만 원을 돌파했다.

이에 앞서 사우회는 1월 5일 전봉찬 회장과 임원 23명이 현충원을 참배했다.

회보 13호 발행

한경사우회

회보 13호가 3월 2일자 로 발행됐다. 1면에 제3차 이사회에서 본회 카페운영활성화와 회비미납 회우엔 경조사비 혜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면엔 김용발 이사가 ‘나의 재직시절 이야기’를 흥미있게 밝혔다.

한강수 회우 별세



전 KBS 제주방송국 보도국장과 목포 방송국장을 거쳐 우리팍 제약 상임고문을 역임한 한강수 회우가 2월 28일 오후 9시 45분 별세했다.

향년 73세. 장지는 천안 풍산 공원묘지.

대한언론인회 20대 집행부

△ 부회장

유재철



△ 이사

강병국



위 원 : 김수남 홍용수

△ 원로위원회 (31년생 이상)

위원장 : 한영섭

간 사 : 황대연

△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손일근

간 사 : 김정훈

위 원 : 계창호 김광희 고두현 남시욱 노상국 노철용 박경석 손세일 신동호 신경식 송용식 오전식 유지효 윤기병 이채주 이태교 이종식 이학주 권신병 조광현 여영무 최서영 민병문 배병휴 백인호

△ 상담역

김명수 김성배 김수웅 김충한 김호기 서병호 윤익한 정형수 조규진 한기호

△ 전문위원회

위원장 : 동문승

간 사 : 임상학

위 원 : 권대웅 김경훈 김동철 김승한 김재일 정웅교 이정원

△ 사업단

단 장 : 김성령

△ 사이버위원회

위원장 : 김영찬

간 사 : 홍창덕

△ 여성위원회

위원장 : 신동식

간 사 : 박순신

위 원 : 김성묘 김후란 박동은 박선영 손진옥 이태자 최금녀

△ 자격상별심사위원회

위원장 : 윤석웅

간 사 : 이향숙 사무총장 (당연직)

위 원 : 김우상 송경섭 안종화 정희준 조규만 조천웅

△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문두

간 사 : 이향숙 사무총장 (당연직)

위 원 : 강두모 김윤석 안종우 이우진 전민조 주종환 홍승국

△ 기금위원회

위원장 : 곽찬호

간 사 : 이향숙 사무총장 (당연직)

위 원 : 권영국 김귀제 김성배 유일연 장효상 호영진

△ 법규위원회

위원장 : 김주철

간 사 : 박연호

위 원 : 심갑섭 문준호 이 선 박승채 이승남

△ 행사위원회

위원장 : 라용경

간 사 : 이용화

20대 집행부 첫 이사회 개최

2016년을 이끌어갈 새 집행부의 첫 이사회가 12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체 임원 19명 중 16명이 참석, 올 한 해 동안 본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청사진을 그리면서 진지하게 논의를 거듭했다. 이사회는 이병대 신임회장 사회로 전 집행부로부터 인수받은 재산 목록과 예산 결산안, 계획 중인 문화탐방 행사 및 확대된 건강 프로 행사 등을 검토했다. 제출안은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으며, 부족한 예산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사들은 최근 KBS 사우회가 회원들의 십시일반 기금 모으기 캠페인을 벌여 사상 최대인 1억5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는 실례를 들면서 대한언론인회도 찬조금 모으기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누구나 부담 없이 1만원 이상 찬조하자는 운동이다.

동시에 전 회원들이 수주하는 광고액수의 30%를 리베이트로 회원에게 돌려

주는 광고 수수 활성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임원진의 상견례가 열려 대한언론인회가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의 구심점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李炳大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李享淑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발행처 (우)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405호(프레스센터)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새 언론 새 걸음 “함께 갑시다”

편집기획사 ‘미디어 피알’

大韓言論人會 새 집행부 출범 축하



미디어피알 이런 일을 합니다

잡지 사보 도서 출판 지원

전·현직 언론인들의
회고록 등 각종 저작물 제작에
전문가의 감각으로
필요한 자료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보기 좋은 작품을 만들어 드립니다.

신문편집 대행

잘 훈련된 편집기자가
‘맞춤형 디자인’으로 편집업무를 지원,
열악한 신문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드려
최상의 신문을 제작해 드립니다.

콘텐츠 신디케이트

중견·원로언론인의 필력과 노하우에 더하여
홍보전문가의 식견을 결합,
고품질의 기사와 칼럼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의 고급화, 차별화와 동시에
경쟁력을 높여 줍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예절·한자교육 • NIE교육
- 문화해설사 • 관광가이드

‘미디어피알 시니어클럽’은
바른 미디어운동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노년의 삶이 뜻있고 보람되게
지자체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시니어직능클럽

미디어피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9 유성빌딩 4층
Tel. 02)736-9111~2 Fax. 02)324-1365

대 표 : 맹태균 (010-5485-5103)

주 간 : 이달영 (010-8952-1365)

한국이앤엑스
KOREA E&EX INC.

소중한 당신의
‘가치’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KIMES 2016

국제 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2016. 3.17- 20 / COEX
www.kimes.kr

KOBASHOW 2016

국제방송 · 음향
조명기기전시회

2016. 5.24- 27 / COEX
www.kobashow.com

K-PRINT WEEK 2016

인쇄기자재전/레이블전
디지털인쇄전/인쇄패키지전

2016. 8.31- 9.3 / KINTEX
www.kprintweek.com

koplas 2017

국제 플라스틱
고무산업전시회

2017. 3.7-11 / KINTEX
www.koplas.com

한국이앤엑스. Tel. 02-551-0102 / ex@eandex.co.kr

